

19세기 멕시코 소설의 체제전복성과 여성성 재현* **

오민욱
전북대학교***

오민욱(2023), 19세기 멕시코 소설의 체제전복성과 여성성 재현,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4(2), 145-175.

초록 본 연구는 19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멕시코에서 출판된 서사 작품이 여성성의 재현을 통해 당대 주요 담론에 대한 체제전복성을 제시하는 양상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서사 작품이 근대 시민의 주체성을 구축하는 다양한 전략과 젠더의식의 관계를 제시한다. 주된 분석 대상은 일라리온 프리아스 이 소토(Hilarión Frías y Soto)의 『불까노(Vulcano)』(1861), 호세 네그레테(José Negrete)의 『빠울리나의 기억(Memorias de Paulina)』(1874), 앙헬 데 캄보(Ángel de Campo)의 『라 룸바(La Rumba)』(1890)이다.

본 연구는 이 세 작품이 당대 사회체제를 전복시킬 잠재적 혹은 실질적 위험 요소를 주요여성 인물의 특성으로 재현한 양상을 분석한다. 또한, 이 작품들이 재현하는 위험한 여성의 다양한 모델이 멕시코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주요 지배계층인 남성 공동체의 범위를 확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젠더 의식의 서사화 과정에서 담론의 내적 균열을 발생하며 이는 곧 당대 엘리트 그룹이 제시한 지배 담론의 모순을 드러냄을 밝힌다.

핵심어 여성성, 주체성, 저널리즘과 허구, 국가공동체

* 이 논문은 2021년도 전북대학교 신입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이 논문은 한국스페인어문학회 2022년 여름정기학회에서 발표한 “합리와 탐욕의 경계: 『불까누스』(1861)에 재현된 물질주의와 여성성”의 내용을 기반으로 발전시켰음.

***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연구소 연구원,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연구원, 전북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운영위원.

I. 들어가며

19세기 중후반을 기점으로 멕시코 사회는 독립 이후의 사회 혼란이 정리되면서 근대사회로의 물리적·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지식인 엘리트들은 서구의 국가 모델을 모범 삼아 조국을 근대 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목표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프랑스 혹은 미국 등 타국의 현재를 기준점으로 자신들의 미래 정체성을 정립해야 하는 모순적 과제에 당면한다. 주로 끄리오요나 메스티소 상류층으로 구성된 지식인 엘리트 그룹은 자신들의 근대 국가 기획에서 멕시코의 고유한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재료를 원주민과 그들의 문화로 삼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근대화를 통해 “문명화”시켜 사라져야 할 대상으로도 원주민과 그 문화로 제시한다(Franco 1898, 79-80)¹⁾. 이러한 모순은 원주민 뿐만 아니라 여성이나 흑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형태로 발현된다.

근대화 과정에서 지식인들이 여성에게 부여한 역할은 당대 지배 담론이 가진 모순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당대의 주요 지식인들은 보편적 자유 개념에 기반한 시민상을 사회 주체의 모델로 지향하면서도, 여성은 주로 가톨릭 담론에서 제시하던 전통적 역할에 머물게 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프랑코(Franco 1989)는 19세기 국가 정체성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멕시코 지식인들이 여성에게 부여한 역할을 크게 “미래 시민을 키우는 어머니와 사적 영역의 수호자”로 제시한다(81). 이 시기 멕시코의 지식인들은 원주민, 여성, 흑인 등이 과거의 “야만성”에 머물고 있기에 이들을 “문명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Franco 1989, 81). 이 기획의 논리구조에서 여성들은 어머니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남

1) 프랑코(Franco, 1989)는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이 제시한 제3세계 문학 중 소외된 문학 작품을 발굴하는 작업이 아닌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는 관점에 기반하여 시대별 여성이 처한 현실과 그를 재현하는 문학 작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힌다(xi-xii). 프랑코가 제시한 이 관점은 본 연구가 19세기 멕시코의 젠더 담론과 문학 작품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체제전복성”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개별 문학 작품이 담고 있는 다양한 여성 재현을 제시하고 지식인 엘리트 담론의 내적 균열 양상을 드러낼 것이다.

성 시민을 양육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정된다. 이로 인해 지식인 엘리트는 여성의 활동 범위를 사적공간, 대표적으로 가정에 제한해야 할 필요성에 당면하게 된다(Franco 1989, 81). 이 과정에서 아직 안착하지 못한 부르주아 윤리를 대신 하여 근대화 과정의 주요 극복 대상이었던 전통적 가톨릭 윤리를 여성에게 부여하는 모순이 나타난다(Franco 1989, 81).

19세기 멕시코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성역할과 근대국가기획 사이의 모순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대표적 미디어로 문학 작품을 꼽을 수 있다. 동시대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멕시코의 엘리트 지식인들 역시 자국의 독자를 근대 국가 모델을 학습시켜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였고, 그렇기에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은 작가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구실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 소설의 대표작들은 여성 인물을 전형화한다. 이러한 전형화는 크게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유형이나, 성적 혹은 물질적 욕망으로 인해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유형으로 나뉜다. 대체로 이들 중 전자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후자는 불행한 결말 맞는 모습을 제시하며 전통적 성역할을 독자에게 내재화한다²⁾. 프랑코(1989)의 논의를 고려해볼 때, 19세기 지식인들이 여성에게 제시한 성역할을 구성하는 핵심 모순은 자유주의에 기반한 국가 제도와 문화를 구축하면서 가정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여성에게 부과하여 신분사회와는 다른 형태의 억압을 생성하는 것이다.

19세기 말 근대화가 촉진되면서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노동시장에도 변화가

2) 프랑코(1989)는 멕시코 역사의 주요시기를 나누어 『플롯 짜는 여성들(Plotting Women)』의 세부장을 구성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시기의 장은 1812년부터 1910년 시기를 다룬 「감각과 관능성: 국가주의적 시기에 대한 메모(Sense and Sensuality: Notes on the National Period, 1812-1910)」이다. 이 장에서 분석한 작품은 호세 호아킨 페르난데스 데 리사르디(José Joaquín Fernández de Lizardi)의 『끼호타 아가씨와 그 사촌(La Quijotita y su prima)』(1818), 페데리코 감보아(Federico Gamboa)의 『산타(Santa)』(1903), 라우라 멘데스 데 쿠엔카(Laura Méndez de Cuenca)의 단편집 『순진(Simpleza)』(1910)과 같은 장·단편 소설과, 『엘 세마나리오 데 라스 세뇨리파스(El Semanario de las Señoritas Mejicanas)』(1841-1842), 『파노라마 데 라스 세뇨리파스(Panorama de las Señoritas)』(1842) 같은 저널, 마리아 엔리케타(María Enriqueta)의 시 작품 등이다(Franco 1989, 79-101).

일어난다. 여성이 임금 노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가 다양화되기 시작했고, 여성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스키너(Skinner 2018)에 따르면, 19세기 말 “신문을 비롯한 공적 담론에서 여성이 일터로 진입하는 현상에 대해 다른 글들이 다수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 기사는 물론 문학 작품은 실제 사회에서 늘어가던 여성 임금 노동자를 거의 재현하지 않았다(142-143). 또한, 이 당시의 작품들은 공적 영역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임금 노동 뿐 만 아니라 사적 영역의 가사노동도 재현하려 하지 않는다(Skinner 2016, 143)³⁾. 스키너(2016)는 이러한 당대의 경향을 “여성의 노동을 노동 이외의 무언가”로 보는 지배 담론의 모순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물리적 근대화를 이룩했더라도 젠더 의식의 형성은 여전히 불안정했다고 주장한다(145). 스키너가 제시하고자 한 문학 작품에 드러난 19세기 말 젠더 의식의 특징은 물리적 변화와 사회문화 사이의 괴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9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멕시코에서 출판된 소설이 여성성의 재현을 통해 주요 담론 대한 체제전복성을 구축하여 근대 시민의 범주를 획정하는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룰 작품은 일라리온 프리아스 이 소토(Hilarión Frías y Soto)의 『불까노(Vulcano)』(1861), 호세 네그레테(José Negrete)의 『빠울리나의 기억(Memorias de Paulina)』(1874), 앙헬 데 캄포(Ángel de Campo)의 『라 룸바(La Rumba)』(1890)이다. 시기별로 첫 번째 작품은 레포르마 전쟁(La Guerra de Reforma) 직후에 출판되었고, 두 번째 작품은 자유주의 그룹의 영웅 베니토 후아레스(Benito Juárez) 사망 후 지속된 혼란기에 출판되었으며, 세 번째 작품은 포르피

3) 스키너(2018)는 19세기 라틴아메리카 문학 작품들이 여성을 노동의 영역에서 제외하는 패턴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로 하위계층의 여성들이 다른 집의 “가사노동 도우미, 음식 판매원, 직물 노동자” 등의 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이를 빠뜨리는 것은 물론 중산층 여성들이 가정에서 무임금으로 노동하는 모습도 제외한다. 이것은 중산층 여성의 가사노동을 언급할 만한 소재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를 마치 자연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 혹은 당연한 의무로 내재화하는 기능을 한다. 세 번째로 상류계층은 혹독하게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을 때만 노동을 하도록 묘사함으로써 노동을 여성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행위로 그린다(143).

리오 디아스(Porfirio Díaz)의 집권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출판되었다.

본 연구는 이 세 작품이 당대 사회체제를 전복시킬 잠재적 혹은 실질적 위험요소를 주요여성 인물의 특성으로 재현한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이 작품들이 재현하는 위험한 여성성이 지식인 엘리트가 당면한 사회과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지배공동체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을 증명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젠더 개념의 서사화 과정에서 담론의 내적 균열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당대 엘리트 그룹이 제시한 지배 담론의 모순을 드러낼 수 밝히고자 한다.

II. 저널리즘과 허구 사이: 사라질 운명의 여성들과 그 증인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세 작품은 공통으로 19세기 멕시코 시티에서 유통되던 신문을 통해 당대 독자에게 전달된다. 이는 세 작품의 작가들이 모두 멕시코 시티에서 신문 편집자나 기고자로 활동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위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들이 신문이란 미디어를 통해 출판되면서 획득하게 되는 효과와 이를 강화하는 작품 내적·외적 전략은 작품의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리아스 이 소토⁴⁾는 19세기 중반 일어난 레포르마 전쟁(1857-1861)에서 승리한 멕시코의 자유주의 그룹을 대표하는 지식인이다. 『불까노』는 1861년, 1862년, 1882년에 멕시코 시티에서 주로 읽히던 일간지 혹은 잡지에 출판된다(Núñez Roa 2020, 10)⁵⁾. 작품의 주요 플롯은 1840년대를 배경으로 주요 여성

4) 19세기 멕시코의 작가이자 정치인이며 의사이다. 전체 이름은 호세 일라리온 라파엘 헤수스 데 로스 돌로레스 프리아스 이 소토(José Hilarión Rafael Jesús de los Dolores Frías y Soto)이다. 1831년 궤레타로(Querétaro)에서 태어났다. 19세에 『불까노』의 주인공처럼 멕시코시티로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한다. 『스스로 그린 멕시코인들(Los mexicanos pintados por sí mismos)』(1854)에 저자로 참여했고 다양한 저널의 편집자 혹은 투고자로 참여했다(57). 소설은 『불까노』 한 작품을 남겼기에 작가보다는 저널리스트 혹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5) 가장 먼저 『모비미엔토(El Movimiento. Periódico Político, Científico, Comercial, Literario y de Avisos)』지의 부록인 『부케(El Bouquet de El Movimiento. Semanario

인물인 필로메나(Filomena)가 주요 남성 인물인 “나”를 배신하고 물질적 풍요를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필로메나와 주인공인 “나”의 플롯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에서 필로메나는 자신을 가난에서 구해준 주인공을 배신하고 그의 채권자와 도주하여 결혼한다. 이 남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는데 필로메나는 그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두 번째 부분에서 홀리아(Julia)로 개명한 필로메나는 불까노⁶⁾라 지칭되는 부유하고 나이 많은 남자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계획을 세운다. 그녀는 일단 불까노와 결혼한 후 나이 많은 남편 대신 주인공과 동침하여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운다. 아이가 있어야 불까노가 죽은 후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그녀의 남편에게 들통났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홀리아가 사망하면서 실패로 끝난다. 필로메나(후반부에서 사교계에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스스로 이름을 홀리아로 개명)가 유산을 상속받

de Literatura, Novelas, Poesías, Artes, Descripciones de Bordados, de Modas, Recetas de Tocador, Artículos de Costumbres, Viajes, etc)』에 1861년 5월 5일에서 5월 26일 사이 게재된다(Núñez Roa 2020, 14). 이후 『오르케스타(La Orquesta. Periódico Omniscio, de Buen Humor y con Caricaturas)』라는 신문(일주일에 두 번 수요일과 목요일에 발행)에 1861년 4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게재된다(Núñez Roa 2020, 19). 마지막으로 『엘 디아리오 델 오가르(El Diario del Hogar. Periódico de las Familias)』지에 포예틴(folletín) 형식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게재된다(Núñez Roa 2020, 24). 각 신문이나 출판물의 성격이 이 작품의 해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뉴네스 로아(Núñez Roa 2020)를 참조.

- 6) 이 작품의 제목인 불까노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헤파이스토스를 가리킨다.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스토스는 절름발이이자 추한 외모를 가진 신으로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남편이기도 하다. 아프로디테는 전쟁의 신인 아레스와 불륜관계에 있는데 이 소설은 젊은 지식인 남성과 나이 들고 부유한 노인 사이를 오가는 젊은 여성이 구성하는 삼각관계에 그리스·로마 신화를 투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Canales Ucha 2018, 10). 하지만 본 연구가 주목하는 특징은 이 작품의 제목이 작품에서 서술사이자 아레스의 위치에 있는 “나”와 아프로디테의 위치에 있는 “필로메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필로메나”의 나인 든 남편인 “불까노”라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 작품은 “절름발이 신이자 황금의 신인 불까노는 우리 시대의 상징임이 틀림없다”(Frías y Soto 2018, 55)라는 문장으로 끝이 난다. 본 연구의 4장에서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하여, 이 작품에서 주요 인물의 관계를 서사화하는 과정이 불까노로 대변되는 가치인 “경제적 능력” 혹은 물질만능주의에 대항하는 “우리”의 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과정임을 밝히고자 한다.

기 위해 남성 주인공에게 자신이 정한 역할을 부여하고 상속제도를 악용할 음모를 구상한 행위는 당대의 결혼개념을 전복한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화자로 서술되는 『불까노』의 서술상 두드러지는 주요 특징은 작품 전체의 서술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⁷⁾. 이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1인칭 주인공 서술자에 의해 기록되지만, 액자소설의 구성방식을 통해 주인공의 친구인 또 다른 인물이 작품 전체의 서술자로 등장해 독자에게 소설 내용을 전달하는 설정을 취한다⁸⁾. 까날레스 우차(Canales Ucha 2018)는 이러한 구성이 “서사구조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1인칭 서술자가 개입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구조로 제시함으로써 좀 더 “교훈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고 분석한다(6). 이 뿐 만 아니라 작품 전체 서술자의 존재는 이 이야기의 픽션성을 높이는 효과를 일으킨다.

이 작품은 전체 서술자에 의해 서술되는 “서론”으로 시작한다. “서론”의 배경과 설정은 다음과 같다. 젊은 남성 지식인인 서술자는 비슷한 계층의 친구들과 모임을 하다가 갑자기 참석자 중 한 명이 급하게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된다. 급하게 자리를 떠난 사람은 이후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필로메나는 산고로 사망하는데 서론 장면은 그녀가 산고를 겪을 때의 시점이다. “나”는 파티 중 필로메나의 남편으로부터 그녀가 위중함을 전해 듣고 황급히 모임 장소에서 뛰쳐나갔던 것이며, 전체 서술자 역시 “나”를 좇아 파티에서 나와 동행한다. 이후 “나”는 전체 서술자에게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는데 이후의 이야기는 이때 전달받은 이야기를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작품은 “서론”을 통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독자이자 다른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체 서술자의 존재를 독자에게 인지도시켜으로써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자신들과 같은 독자에게 듣는다는 인상을 불러

7) 이제부터 이 소설의 서술자 중 작품 전체의 서술자, 즉 이야기 주인공의 과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서술자는 “작품 전체 서술자”로 지칭하고,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실제 서술자는 “나”로 표시한다.

8) 이 소설은 주요 플롯을 구성하는 I장에서 X장까지의 부분과 이보다 앞에 등장하는 “서론(Introducción)”까지 총 12부분으로 구성된다.

일으킨다. 이는 소설을 통해 전달되는 이야기가 가진 객관성이나 픽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플롯이 진행된 후 필로메나가 죽는 장면에서 전체 서술자와 주인공이 함께 등장하는 설정은 재현되는 사건의 차원에 자신들과 같은 독자가 등장인물로 활동하는 모습을 읽으면서 소설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해지는 효과를 독자들에게 불러일으킨다.

네그레떼⁹⁾의 『빠울리나의 기억』 역시 『불까노』와 마찬가지로 작품의 내·외적 서술적 장치가 이야기의 픽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 작품의 서술자이자 주인공은 프랑스에서 멕시코를 방문한 꼬리스파(corista)인 빠울리나이다. 그녀는 “프롤로그(prólogo)”에서 자신의 불우한 과거를 매우 간략하게 묘사하고, 멕시코 시티를 방문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이후 I장부터 XX장까지의 내용은 멕시코 시티에 도착해서 다시 유럽으로 떠날 때까지 빠울리나가 겪는 경험으로 구성되며,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된다. 마지막 장인 “에필로그(Epílogo)”에서만 제3의 서술자가 등장해 빠울리나가 실제로 유럽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작품을 마친다. 이 작품의 가장 두드러진 서술적 특징은 남성 작가가 여성 인물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서술한다는 점과 그 여성 인물의 발화 위치가 프랑스인이자 꼬리스파라는 이중적 타자의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다¹⁰⁾. 물론 이러한 특징은 당대의 문학 작품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인물

9) 호세 네그레떼(1855-1883)는 벨기에에 파견된 외교관의 자제로 태어나 열한 살이 되던 해 멕시코로 돌아온다. 이후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소설가, 번역가, 신문기자,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정치적으로 세바스티안 레르도 데 테하다 이 꼬랄(Sebastián Lerdo de Tejada y Corral)을 지지했고 포르피리오 디아스가 정권을 잡는 계기가 된 플란 데 투스테펙(Plan de Tuxtepec)에 반대편에 있었다. 1883년 전염병으로 사망한다(Sandoval 2006, 6-7). 『빠울리나의 기억』은 처음에 출판될 때는 검열을 피하기 위해 익명으로 출판되었으며, 출판정보 역시도 표기하지 않았다(Sandoval 2006, 6).

10) 프랑코(1989)는 19세기 여성작가의 수가 제한적임에 따라 남성 작가들이 여성 이름을 필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러한 의도가 “공적 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82). 물론 이 작품은 여성의 이름을 필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성 인물의 경험을 서술했다는 점에서 정확히 프랑코가 지적하는 특징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성의 발화 위치에서 플롯 내용을 서술하는 목적과 이로 인해 독자에게 발생하는 효과는 남성 작가가 여성 필명을 사용하는 효과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설정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다음에서 설명할 신문 미디어의 특성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통해 빠울리나가 발화하는 멕시코 사회에 대한 전복적 메시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빠울리나의 기억』은 신문이라는 미디어의 특성을 통해 팝진성을 극대화하는 퍼포먼스를 보인다. 이 작품의 X장과 XVII장은 네그레테가 1874년 9월 12일부터 『라 레비스타 우니베르살(La Revista Universal)』의 “토요일의 즐거움(Recreaciones sabatina)” 이란 칼럼란에 “상식적 편지들(Cartas al sentido común)” 이란 부제로 출판한 내용이다(Sandoval 2018, 10). 이와 거의 동시에 『라 레비스타 우니베르살』은 1874년 9월 18일 다음과 같은 편지와 함께 노트 한 권이 자신들에게 배달되었다며 편지 내용을 공개한다(Sandoval 2018, 10-11).

내 친구들에게,

승선하기 전 당신들에게 멕시코에서 내가 느낀 감상들과 나의 모험을 적은 일기를 보냅니다. 당신들의 위대한 신문에 내가 쓴 유행에 관한 글들을 실어주신 영광에 감사하며 이번에 보내는 글 역시 포예토(folieto)로 출판해주는 호의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우리 여자들은 남자와 그 밖에 것들을 평가하는데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어떤 시대와 사회를 담아내는데 여자들에게 묻지 않는 것은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아들 뒤마(Dumas)가 “15페니의 복숭아”라고 불렀던 여인 중의 하나가 되게 한 운명을 불운이라 볼 수는 있지만, 아름다운 엘레나가 말한 것처럼, 절대 범죄라 할 수는 없습니다. 『삼총사(los tres mosqueteros)』의 작가는 『가운을 입은 위인들(Los grandes hombres en bata)』이란 작품도 썼습니다. 이것은 [제 글은] 허영심의 산물이라기보다 고귀한 멕시코인들을 더 단순한 의복을 통해 그리고자 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수다는 충분히 나눴으니, 당신들의 손에 쥐어진 작품을 평가하는 것은 당신들의 몫입니다.

빠울리나로부터(Sandoval 2018, 11, 필자 강조)

이 가상의 편지와 더불어 이 잡지는 빠울리나의 요구대로 자신들이 곧 그녀의 일기를 출판할 계획이라고 소개한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과 연결되는 이 퍼포먼스는 빠울리나의 글에 팝진성을 더하면서 글을 쓴 목적 역시 분명하게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위의 인용에서 제시하는 『빠울리나의 기억』의 집필 목적

은 멕시코 상류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역을 맡는 배우에 비해 품격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꼬리스파가 자신의 글을 알렉산드르 뒤마의 작품과 같은 선상에 놓으면서 주로 남성의 역할이었던 작가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뒤흔드는 동시에 이 작품의 픽션성을 강화한다.

데 캄뵈¹¹⁾의 소설 『라 롬바』는 1890년 10월 23일부터 1891년 1월 1일까지 『엘 나시오날(El Nacional)』에 연재된 작품이다(Olea Franco 2018, 9). 첫 장면부터 이 작품은 멕시코 시티 변두리에 있는 롬바라는 이름의 빈민가를 묘사한다. 작품의 주인공 레메디오스(Remedios)는 이 빈민가에 사는 가난한 대장장이의 딸이다. 그녀는 시내 변화가에서 재봉사로 일하는데, 그곳에 드나드는 부유층의 삶을 동경한다. 그녀에게는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변화가에서 일하는 나폴레옹 꼬르니촌(Napoleón Cornichón)이라는 애인이 있고, 롬바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서른 살 남짓의 마우리시오(Mauricio)에게도 구애를 받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레메디오스에게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동거하자고 요청하고 주인공은 이를 받아들인다. 레메디오스가 갑자기 사라지자, 마우리시오는 그녀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나폴레옹과의 빈곤한 삶에 지쳐가던 레메디오스는 마우리시오에게 도움을 청한다. 레메디오스가 다른 남자를 만날 것이라는 의심과 그로 인한 질투에 이성을 잃어가던 나폴레옹은 어느 날 마우리시오가 자신의 집에 방문했다고 의심하여 술을 마시고 레메디오스를 총으로 위협한다. 이렇게 두 사람은 다투게 되고 레메디오스는 우발적으로 나폴레옹의 총으로 그를 죽이게 된다. 이후 레메디오스가 체포되고 마우리시오 역시 공범으로 의심받아 법정에 서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은 멕시코 시티의 많은 신문에 게재되어 멕시코 시티 여론의 주요 논쟁거리가 된다. 이후 레메디오스와 나폴레옹은 무죄로 방면되고 레메디오스가 성당에 몸을 의탁하면서 작품은 막을

11) 앙헬 데 캄뵈의 완전한 이름은 앙헬 에프렌 데 캄뵈 이 바예(Ángel Efrén de Campo y Valle)이다. 1868년 멕시코 시티에서 태어났고 40세가 되던 1908년 같은 도시에서 사망한다. 신문기자이자 작가로 활동했으며 그의 작품 대부분은 신문에 정기적으로 연재하던 글들을 모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끄로스(Micrós), 틱택(Tick-Tack)등의 필명으로도 활동했고 대표작은 『여가와 기록(Ocios y apuntes)』(1890), 『보여지는 것들(Cosas vistas)』(1894), 『밑그림들(Cartones)』(1897) 등이 있다(Olea Franco 2018, 7-8).

내린다.

이 작품이 신문이라는 미디어의 특징을 통해 픽진성을 획득하는 전략은 『불까노』나 『빠울리나의 기억』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이 작품의 XI장에서 서술자는 레메디오스가 나폴레옹을 죽인 사건이 당시 실재했던 신문인 『엘 노피시오소 (El noticioso)』지에 게재되었다며 기사를 그대로 소개한다(De Campo 2018, 147-152). 로드리게스 곤살레스(Rodríguez González 2012)에 따르면, 1890년 11월 30일 데 캄뵘은 『엘 나시오날』에 『라 룬바』의 당일 연재분과는 별개로 위에서 언급한 『라 룬바』의 XI장을 “가세피아(Gaceta)” 섹션에 게재한다(102)¹²⁾.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890년 12월 2일 『엘 나시오날』은 경쟁신문인 『엘 모니토르 레뿌블리카노 (El Monitor Republicano)』의 “가세피아”란에 데 캄뵘의 소설이 마치 사실인 양 재 활용되어 실렸다고 밝힌다. 즉 데 캄뵘의 퍼포먼스가 영향력 있는 다른 신문이 소설 내용을 실제 사건인 것처럼 착각하게 한 것이다(Rodríguez González 2012, 102-103)¹³⁾.

작품의 내적인 서술 구조 역시 『라 룬바』의 픽진성을 강화한다. 이 작품을 일간지의 연재소설로 접한 독자는 미디어의 성격으로 인해 서술자를 작가와 일치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독립된 소설로 이 작품을 읽으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과 작품 중간에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1인칭 시점이 혼합된 불안정한 서술자로 읽힐 수 있다. 결국 작품의 서술자는 XIV장에서야 밝혀지는데, 그는 레메디오스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 혹은 꼬로니카 작가로 등장한다. 이는 작가와 서술자가 일치되는 듯한 효과를 불러오는 설정이다. XIV장에서 작품의 서술자는 우연히 레메디오스 사건을 취재하는 범죄전담기자 레보예도(Rebolledo)를 만나 그녀가 갇힌 벨렌(Belén) 감옥을 견학하게 된다. 여기서 서술자는 레보예도 같이 독자의 흥미에만 초점을 맞추는 신문기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Olea Franco 2018, 23).

12) “가세피아”는 당대의 신문에서 가십성이 짙은 사건을 눈에 띄는 제목과 함께 따로 분량을 할애하여 게재하던 섹션이다(Rodríguez González 2012, 102).

13) 『엘 나시오날』과 『엘 모니토르 레뿌블리카노』는 이로 인한 분쟁을 겪는데 그 내용은 다음 로드리게스 곤살레스(Rodríguez González)(2012)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벨렌 감옥의 죄수들에게] 불쌍한 사람들 같으니! 하지만 룬바와 같이 몽상을 좇다가 저기에 떨어져 버린 사람들은 더 가엾다. 룬바는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풀어 헤친 채, 처마에 구부정하게 앉아있었다. 그녀는 추위에 떨고 있었고, 젊었지만 이제는 불행했고 더구나 저 저명한 루카스. G. 레보예도에 의해 취재되었다. (De Campo 2018, 180).

이처럼 이 작품은 당시 신문 기사가 자신이 직접 취재한 일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이 작품이 신문에 연재되고 있었음을 생각해보면 이 역시 작품이 출판된 미디어의 성격과 결합하여 작품의 팝진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실과는 상관없이 독자의 흥미에 초점을 맞춘 레보야도를 등장시켜 서술자에 의해 전달되는 레메디오스 사건의 경과가 좀 더 진실에 가깝다는 인상을 부각한다. 즉 소설의 내용이 신문 기사인지 허구인지를 논란거리로 만들기보다, 그 내용이 사건의 진실에 초점을 맞춘 기사인지 독자의 흥미만을 유발하게 하는 기사인지에 독자의 관심을 이동시켜 작품의 팝진성을 내재화하는 효과를 일으킨다.

세 작품의 서사구조 혹은 미디어를 통한 퍼포먼스를 통해 팝진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다음 장에서 분석할 여성 인물들의 체제전복성을 통해 이 작품들이 독자에게 제시하는 교육적 의미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본 연구의 4장에서 분석하는 작품의 내적 균열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III. 체제전복성을 담는 기표로서의 여성성: 거부할 수 없는 유혹과 위협 사이

『불까노』의 필로메나, 『빠울리나의 기억』의 빠울리나, 『라 룬바』의 레메디오스는 공통으로 여성이라는 설정을 통해 서술자에 대한 타자로 구축된다. 하지만, 작품마다 여성이라는 특성 이외에 또 다른 타자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부여되는데, 본 연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각 작품이 제시하는 체제전복성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불까노』의 경우 필로메나는 멕시코의 지방 출신 메스티소 남성 지식인이라는 화자에 대비되어, 유럽계 백인이라는 특성으로 타자화되고 있다. 『빠울리나의 기억』에서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빠울리나는 프랑스인이자 윤리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꼬리스파라는 특징을 통해 멕시코 사회의 중상류층과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라 룬바』에서는 서술자인 남성 작가 혹은 기자에 대비되어 빈민층이라는 특징을 통해 주인공인 레메디오스는 타자화된다. 세 작품의 여성 인물은 19세기 멕시코 사회의 지식인 담론이 여성에게 부여한 주요 역할인 가정의 수호자와 모범적 어머니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여성에게 주어진 성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족한” 여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의 시점이 기획하는 근대 국가의 시민상을 전복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전복성은 앞에서 언급한 여성이라는 특징 이외에 이들에게 제시된 타자의 특성과 깊은 연관성을 보인다.

『불까노』의 필로메나가 비윤리적 판단과 행동을 하는 주요 동기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다. 여성이 물질적 탐욕에 취약하다는 전형화는 서구 예술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설정으로 특히 19세기 말 여성은 서구사회에서 “구매하는 기계”로 인식되기에 이른다(Felski 1995, 61-62). 하지만, 프라이스 이 소토의 소설은 필로메나가 가진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여성 전체에게 주어진 자연적 특성인지 개인의 교육이나 경험으로 인한 후천적 특성인지 모호하게 제시한다. 주인공은 고향에서 멕시코 시티로 유학 가는 길에 필로메나를 처음 만난다¹⁴⁾. 이때 그는 필로메나의 외모를 묘사하는데, 가장 초점을 맞춘 특징은 금발의 머리카락이다.

그녀는 금발이었다. 아마도 그녀의 가게에 유럽인들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리라. 그들은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또한 의심할 여

14) 주인공은 처음 자신의 여정을 설명하며 “내 조국을 떠나”멕시코 시티로 가는 길이었다고 서술한다(Frías y Soto 2018, 19). 이는 주인공이 다른 국가에서 태어나 멕시코 시티로 유학을 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카날레스 우차(2018)는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표현이 당시 스페인에 남아있던 프랑스어의 영향이라 분석한다. 당대 프랑스에서 “나의 조국”은 자신이 태어난 지역이나 동네를 일컫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것이다(Canales Ucha 2018, 11).

지 없이 우리를 계몽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때때로 그들은 우리의 인종과 섞였고 이는 아마도 우리 인종을 개선하기 위한 **박애주의적** 목적 때문이었을 것이다. (Frías y Soto 2018, 20, 원문강조)

위처럼 그녀의 가족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외모를 통해 혈통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외모를 제시하여 서술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필로메나의 정체성은 유럽계의 후손이라는 점과 인종적으로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점이다. 동시에 이 인용에서 서술자는 자신의 위치를 유럽인에게 정복당한 원주민 혹은 그들과의 혼종인 메스티소로 확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계의 인종적 특성을 가진 필로메나는 결국 주인공을 배신하고 결혼제도를 이용해 자신의 물질적 탐욕을 채우려는 체제전복적인 인물로 변모한다.

주인공의 설득으로 그와 함께 멕시코 시티에 거주하며 필로메나는 스페인어 읽기와 쓰기를 배운다. 언어를 익힌 필로메나는 도시의 화려한 삶을 동경하게 되며 주인공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재정적 어려움은 필로메나와 “나”의 생활에 빈번히 갈등을 유발하며, 이후 필로메나는 주인공에게 돈을 빌려준 부유한 채권자와 도주하고 재산을 상속받기에 이른다.

주인공인 “나”는 필로메나가 배신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할 때, 그 원인을 유년기의 교육을 받지 못해 생긴 도덕관념의 부재와 여성의 선천적 품성 사이에서 모호하게 표현한다. 작품의 초반부에 필로메나는 시각 장애가 있는 나이 든 여성과 구걸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던 것으로 묘사되는데, 주인공은 이를 내전(레포르마 전쟁)의 결과라고 추측한다(Frías y Soto 2018, 24). 결국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우월한 혈통을 가진 소녀는 방치되고 “본능을 제외하고는 그 무엇도 그녀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해준 적이 없는” 상태로 자라게 된다(Frías y Soto 2018, 26). 주인공의 설득으로 필로메나는 함께 살던 노파와 헤어져 멕시코 시티로 떠나게 되는데, 이 장면을 서술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쾌락을 얻기 위한 야망이자 쾌락에 대한 사랑과 욕망이 그녀의 영혼을 온통 잠식한 것이었다. 그녀는 심장이 없었다. 배덕을 저지르며 문명화된 삶을 시

작한 것이다. 그녀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었다”(Frías y Soto 2018, 29). 이러한 설정은 우월한 인종적 특성을 가진 유전자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의 결여로 인해 근대적 주체로의 교육 과정에 부적합한 주체로 필로메나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필로메나의 도덕적 해이가 실제적 행동으로 발현되게 된 계기는 그녀가 주인공으로 인해 말과 글, 즉 지식을 얻는 기본적인 수단을 획득하면서부터이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녀는 한 여성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웠다. 오직 여성들만의 특유한 본능적 조속함과 신속한 사고능력으로 기쁨을 주기 위한 표현과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행동거지, 말씨, 기술 등을 배웠다. 이것이 여성이라는 달콤한 학파가 이해하는 모든 것이었다. (Frías y Soto 2018, 30).

이 묘사에서 보는 것처럼 서술자는 여성의 지적 능력이 타인을 속이거나 유혹하는 일에 특화되어 있으며, 이는 필로메나라는 한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 전체의 본질이라 묘사한다.

필로메나가 떠나간 후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주인공은 무도회에서 홀리아로 개명한 필로메나를 만난다. 필로메나 일 때는 주인공이나 채권자에게 의존했던 그녀는 스스로 이름을 부여하고 멕시코 시티의 사교계에서 활동한다. 또한, 불까노라고 불리는 부유한 노인과 결혼하여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계획을 구상하고 실행한다. 홀리아로 활동하다 우연히 주인공을 다시 만난 그녀는 자신이 앞으로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아이가 필요하지만, 남편이 노인의 몸이라 아이를 갖기 어려우니 주인공에게 동침하자고 제안한다. 이때 주인공은 불까노 대신 자신과 결혼하자고 홀리아를 설득하지만, 그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홀리아의 주요 설득 전략은 불까노와 결혼할 때와 주인공과 결혼할 때 생기는 편익의 차이를 제시하는 것이다.

나 역시 당신[주인공]을 사랑해. 하지만 눈을 멀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열정은 없어. 다른 남자 누구에게도 느낄 수 없는 감정을 너에게 느껴. 내 전남편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이제 거의 남지 않았어. 화려함과 물질에 대한 내 멈출 수 없는 욕망을 너는 절대 충족시켜줄 수 없겠지.

나의 미래도 우리의 결혼으로 망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고통과 시간은 결혼이 잘못이었음을 내가 깨닫게 만들겠지. 우리는 영원히 불행하게 될 거야. (Frías y Soto 2018, 43, 필자강조)

위의 인용 부분에 드러난 바와 같이 필로메나는 결혼 행위의 목적을 철저하게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환원한다. 그녀는 자신과 주인공이 결혼했을 때를 가정하고 자신의 행복 뿐 만 아니라 주인공의 불행해질 미래 역시 제시하며 자신의 요구를 정당화한다. 이 작품에 재현된 필로메나의 특성은 단순히 성적 욕구에 취약하여 불륜을 저지르거나, 물질적 욕구에 취약하여 성매매 여성이 되는 19세기 소설의 전형적인 여성 유형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남성 인물의 구애나 선택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타산적인 여성 인물은 멕시코 문학에서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Cano Sánchez 2018, 278). 필로메나 혹은 홀리아는 불까노로 대변되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행동하며, 이는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성적 행위자의 면모까지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빠울리나의 기억』의 첫 장인 “프롤로그”는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빠울리나의 성장 환경을 매우 간략하게 제시한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사랑하는 남성에게 버림받은 어느 미혼모의 딸로 묘사한다. 그녀는 연극배우로 데뷔하려 하지만 별다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단역이나 주로 코러스를 맡는 꼬리스파로 활동해왔다. 프랑스에서 방탕하게 생활하던 그녀는 멕시코 시티에서 공연을 떠날 오페라단의 무용팀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합류하기로 한다. 이후 멕시코의 도착한 빠울리나는 자신이 겪은 경험과 그에 따른 멕시코 사회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다. 이 작품은 여성에게 부여된 전통적 성역할이나 당대의 도덕적 기준에서 한참 벗어난 삶을 살던 빠울리나의 눈으로 멕시코 상류사회의 부조리와 비도덕성을 고발한다.

『빠울리나의 기억』의 플롯은 단일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고, 거의 독립적인 개별 에피소드가 멕시코 사회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제시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빠울리나의 주된 비판대상은 여배우들과의 성적 관계에 관심

을 쏜던 중상류층 젊은 세대인 “포요(pollo)”, 파리를 비롯한 중심부의 패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상류층 여성들, 불륜을 저지르며 결혼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위선을 보이는 사회 지도층, 사건의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천편일률적 기사만 쓰는 언론 등 다양하다¹⁵⁾. 논란을 일으킬만한 내용으로 인해 출판 후 발생할 검열을 예상이라도 한 듯 작가는 익명으로 이 작품을 출판했으며, 출판된 이후 이 작품은 『엘 모니포르 레뿌블리카노』, 『라 오르게스따』, 『엘 시글로 디에시누에베(El Siglo XIX)』 등 수많은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았다¹⁶⁾.

꼬리스파라는 설정은 작품을 완전히 읽기도 전에 당대의 전형적인 “위험한 여성”의 특징이 빠울리나에게 부여될 것임을 독자가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근대사회로 이행되면서 임금 노동에 해당하는 다양한 직업군이 여성에게도 문을 여는데, 공적 주체로서 여성의 위치가 형성되고 있던 시기에 여배우는 매우 특별한 직업으로 인식되었다. 유럽이나 라틴아메리카를 막론하고 여배우는 경제활동의 주체이자 가정 밖 공적 영역에 노출되어 타락한 타자라는 상반된 이미지로 인식되었다. 여기에 꼬리스파는 예술적 능력을 인정받아 예술가로 추앙받는 유명 여배우와 비교할 때 당대의 문학 작품에서 주로 부정적인 특성으로 그려진다. 빠울리나는 꼬리스파에 대한 문학적 재현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그녀는 예술적 능력이 부족하고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 수입을 얻기보다, 육체적 관계를 대가로 부유한 남성에게 원조를 받거나 불륜의 파트너가 되어 사치스러운 삶을 누린다. 필로메나가 결혼제도를 통해 물질적 욕구를 실현하려는 인물이었다면 빠울리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매력을 대가로 이성에게 재물을 획득한다¹⁷⁾. 이후 분석할 『라 롬바』의 레메디오스가 19세기 말

15) 산도발(Sandoval, 2006)는 『파울리나의 기억』을 출판하기 이전에도 네그레페가 『라 레비스타 우니베르살』을 통해 “언론, ‘오페라 부파’(ópera bufa) 장르의 상연, 여배우와 가수들, 그러한 공연을 보러 가는 대중, 무용수들에게 매혹된 ‘뽀요’들, 명성이 높은 ‘꼬르페사나(cortesana)’의 이름을 아는 젊은 여성들에 대해 신랄하게 공격하고 비판했다”고 밝힌다(8-9).

16) 이 작품을 둘러싼 당대의 논란과 비판은 산도발(Sandoval 2006)을 참조하기 바란다.

17) 여성 인물 특히 꼬리스파를 1인칭 서술자로 설정한 작품으로는 마누엘 구미에레스 나

여성의 전형적 직업인 재봉사임을 고려해본다면, 인물의 경제활동 범위를 사적 혹은 공적 영역으로 구분했을 때 빠울리나는 필로메나와 레메디오스 사이의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빠울리나라는 인물에게 부여된 체제전복성은 프랑스인이라는 외부자의 시각에서 멕시코 사회를 비판한다는 설정 위에 구축된다. 더구나 이 인물은 멕시코 사회가 근대화의 지향점으로 삼는 파리를 멕시코의 지식인들보다 더 가까이서 경험했다는 점에서 멕시코 지식인 엘리트 그룹에 대한 우월성을 확보한다. 여성이자 꼬리스파로서 주요 지식인 사회의 외부에 존재하는 타자이면서 그들이 지향하는 모델인 파리와 더 친밀한 위치에 있는 빠울리나는 인물 특성 자체로 당대의 주요 담론에 대한 체제전복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IV장『광란의 축제』에서 빠울리나는 파리에서부터 자신에게 구애하던 두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V장『불륜』에서 이미 아내가 있는 판사와 새로운 만남을 가진다. 이때 그녀는 명시적으로 결혼이란 법적 상태가 자신에게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음을 밝힌다. “그는 이미 다른 여성과 끊어버릴 수 없는 제약[결혼]으로 얽혀있었는데, 이점이 그에게 끌리는 걸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네그레테 2018, 41). 빠울리나는 결혼제도가 가진 제약을 무시하고 불륜을 조장하는 층위에서만 멕시코 사회의 윤리 인식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이 제도가 가진 핵심적 모순을 비판한다. 주체가 결혼을 결정할 당시 상대에게 가진 정신적 혹은 감정적 상태(사랑)가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것이 당위적이라는 전제에 기반하여 결혼제도가 법제화되었다면, 이 법이 불륜을 제도적으로 막는 것은 법률체계의 내적 모순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헤라(Manuel Gutiérrez Nájera)의 『마논의 모험(Aventura de Manon)』을 꼽을 수 있다(II장에 일기 형식으로 삽입). 오민욱(Minwook Oh, 2021)은 이 작품을 비롯하여 구띠에레스 나헤라가 프랑스의 꼬리스파를 비롯한 여배우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서사 작품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라는 문화 중심부의 예술적 가치를 멕시코의 남성 작가가 여성 꼬리스파의 관점을 통해 전유함으로써 젠더의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통해 중심부와 주변부 간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극복하려는 전략이라 분석하였다.

만약 입법자[결혼제도를 만든 사람]가 [상대방에 대한] 열망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다면 왜 아무도 갖지 않을 욕망을 사용할 권리를 금지한 것인가? 그는 믿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유지될 수 없음을 예상했다. 그는 증오와 질투의 중요성을 무겁게 생각했다. 그는 가장 폭력적인 형태의 사랑에 가장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이 뒤따름을 인지하고 있었다. (Negrete 2018, 43).

빠울리나는 자유주의 국가 모델로 제정된 법이 개인이 가진 순간의 생각이 나 감정을 영원히 지속되기 위한 목적으로 작동하는 모순적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후에도 결혼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그 모순을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독자에게 던진다.

그러나 이 부조리하고 잔인한 감옥[결혼]을 원한 것은 여성이 아니야. 남성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지. 법이 이 두 당사자 간에 난입하여 그들의 젊음이 사라지고 있다고 그들을 붙잡은 거야. 그러곤 행복에 대한 전망이 시작되는 순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너희는 행복해질 희망으로 서로 결합했을 거야. 하지만 너희에게 이것만을 확실히 말할 수 있어. 너희는 문이 잠긴 감옥에 영원히 갇힌 거야. 나는 너희의 고통과 한탄, 고난과 탄원 앞에 준엄할 거야. 또한, 너희 자신을 옥죄는 쇠사슬로 자기 자신을 상처입히는 날이 온다면, 교도관에게 너희를 떨어뜨려 놓으라고 하지도 너희에게 자유를 돌려주라고 하지도 않을 거야.” (Negrete 2018, 42)

위의 인용에서 빠울리나는 근대 부르주아 사회의 근간이 되는 핵심 법률관계인 결혼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하나의 제약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혼제도에 내재된 모순을 드러내는 동시에 지식인 사회의 위선을 효과적으로 비판한다.

『라 롬바』의 주인공 레메디오스는 여성에게 부여된 제약 이외에도 원주민 혹은 메스티소 빈민층의 태생적 한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작품의 도입부에서 서술자는 레메디오스나 다른 주요 인물이 아닌 라 롬바라는 공간을 묘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서술자가 제시하는 이 공간의 주요 특징은 지저분하고, 무질서하며,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다. 특히 작품의 첫 장면에서 쇠락해가는 성당 건물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이 공간이 가진 어두움과 쇠락함의 이미지

를 강조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당시의 멕시코 시티에 등장한 근대적 교통수단인 트램(tranvía)의 이미지와 대비된다¹⁸⁾. 아직은 나귀와 같은 동물의 힘으로 움직이지만, 근대적 교통수단이었던 트램을 통해 레메디오스는 자신이 속한 롬바와 또 다른 세계인 멕시코 시티 중심부 사이를 손쉽게 이동한다. 레메디오스는 변화가에서 일하며 자신의 처지를 바꾸고 싶다는 욕망을 갖는다¹⁹⁾. 이는 트램을 탈 때마다 점점 공고해지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근대사회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트램은 결국 레메디오스에게 이루기 힘든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로 묘사된다²⁰⁾. 이처럼 트램을 통한 도시 중심부의 경험은 레메디오스가 이후 나폴레옹과 야반도주를 선택하는 주요 동인이 된다.

하지만, 『불까노』의 필로메나처럼 레메디오스 역시 환경 이외에도 주어진 품성 혹은 신체적 특성이 타락의 요인으로 묘사된다. 레메디오스의 첫 등장에서부터 그녀의 외모가 제시되지만 다른 작품의 두 여성 중심인물과는 다른 특징이 두드러진다.

18) 스키너(2016) 역시 근대적 교통수단의 도입과 이로 대변되는 근대화가 당대의 작가들에게 미친 영향에 주목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1880년에서 1884년 멕시코 철도 시스템의 도입은 광산 산업을 활발하게 하고 멕시코 시티에 수많은 상점이 들어선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자본이 유입되게 한다(147).

19) 레메디오스의 직업인 침모(costurera)와 비슷한 용어로 “모디스파(modista)”가 있다. 주로 여성의 옷을 만드는 이 직업은 19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여성의 이미지를 대변하며 다수의 문학 작품에 재현된다. 멕시코 문학에서 이러한 예시로는 구띠에레스 나헤라(Gutiérrez Nájera)의 “홉 공작부인(La duquesa Job)”(1884)이라는 시가 대표적이다. 이 작품은 모디스파인 여성이 멕시코시티의 중심부를 활보하는 장면을 남성 지식인 두 명이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는 설정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홉 공작부인이라 불리는 여성은 물질에 대한 욕구가 강한 인물이자 성적 매력을 가진 인물로 묘사된다.

20) 트램을 모티브로 한 주요 작품으로는 구띠에레스 나헤라의 『트램에 관한 소설(La novela del tranvía)』(1883)이 있다. 이 작품은 남성 크로니스트가 트램을 타고 멕시코 시티의 전경을 살피고 트램에 탄 승객들의 정체성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승객 중 하나인 젊은 여성은 마치 불륜 상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서술자에 의해 추측되는데 여기서 트램은 여성의 허락받지 못한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처럼 그려진다. 이 작품에서 트램은 남성 작가에게는 멕시코 시티의 현실을 관찰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수단이 되고, 여성에게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위험한 도구로 제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녀는 코스메 베나(Cosme Vena)씨의 딸 레메디오스였다. 그녀는 남성적 면모를 가진 여성으로 성장할 것이 확실해 보였다. 조숙하게 성장하여 힘찬 굴곡을 가진 외형 때문에 옷의 이곳저곳이 터져있었다. 매우 어렸지만 달콤한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솔직함이라고는 볼 수 없는 여성들의 시선이 가진 매혹적인 빛이 가끔 비추곤 했다. (De Campo 2018, 46, 필자강조)

레메디오스는 필로메나나 빠울리나처럼 아름답지만, 남성처럼 건장한 신체를 가진 인물로 묘사된다. 이 특징은 서술자에 의해 작품 전반에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라 롬바에 살던 “남자아이들은 힘이 쉰 그녀[레메디오스]를 두려워했다”(De Campo 2018, 47)거나 “레메디오스는 마치 사내처럼 일했다”(De Campo 2018, 47)는 표현은 육체적인 면에서 레메디오스의 남성성을 강조한다. 19세기 말 남성이 여성성을 가지거나 여성이 남성성을 가지는 현상은 우생학이나 퇴화이론에 의해 대표적 비정상성으로 분류되고, 인류 전체의 “퇴화”(Degeneration)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간주되기에 이른다(Dijkstra 1986, 213). 레메디오스의 이러한 특징은 서술자가 처음부터 그녀에게 비정상성을 부여하여 이후에 그녀가 비극적 삶을 겪게 될 것임을 독자에게 암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소설의 첫 부분에서 레메디오스에게 구애하던 두 남성인 나폴레옹과 마우리시오 모두 그녀로 인해 부정적인 운명을 맞이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라 롬바』의 레메디오스는 스키너가 분류한 19세기 문학의 여성 재현 패턴을 고려해보았을 때 노동하는 여성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주요 인물로 삼는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갖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이 작품은 공적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양성적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이 여성이 자신의 운명 뿐 만 아니라 남성 주체들의 운명까지 불행하게 이끌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원래 멕시코 인이 아니었던 타자인 빠울리나와의 두 여성 인물인 필로메나와 레메디오스의 결말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꼽자면 전자는 죽음을 맞이하는 반면 레메디오스는 종교에 몸을 의탁하게 된다는 것이다. 라파엘 올레아(Rafael Olea)(2018)는 당대 멕시코의 소설 중 여성 주인공의 이름이 제목으로

제시된 작품들에서 사회 규범을 어기는 여성 주인공들이 주로 자살이나 병 등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는 결말과 이 작품을 비교하며, 데 캄쁘의 작품이 당시 사회에서 논란이 되던 사회 규범에 대항하는 여성의 이미지와 순응하는 여성의 이미지 사이에서 중도적 봉합을 꾀했다고 평가한다(30)²¹⁾. 하지만, 경제활동을 통해 신분 상승의 꿈을 품고 나폴레옹과의 만남을 통해 그것을 실현하려고 했던 레메디오스가 성당에 몸을 의탁하는 결말이 필로메나가 죽음을 맞이한 것에 비해 여성 주체에 대한 우호적 시각을 보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필로메나의 경우 물질주의라는 당대 멕시코 사회를 잠식하기 시작한 가치관에 경도되어 죽음을 맞이했고 이는 여성이 물질에 대한 탐욕에 취약하다는 당대의 선입견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레메디오스 역시 어렸을 때부터 남성적 신체 특징을 가지고 공적 영역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인물로 그려진다. 두 여성 인물 모두 근대사회의 여성이 가져야 할 덕목을 갖지 못함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제시하기 위해 소설의 서사를 통해 소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필로메나는 결혼제도를 주체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모습을 보였고, 레메디오스는 남성과의 난투극에서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 둘과는 차이점을 보이는 빠울리나는 처음부터 남성 지식인 집단에 대한 철저한 타자로 등장하여 이들을 비난하기 위한 발화 위치를 점유한다. 그녀는 결혼제도를 이론적으로 비판하고 이 제도를 수호해야 할 멕시코 상류층의 위선을 고발함으로써 체제전복적 성격을 보여준다.

21) 올레아 프랑코(2018)은 이러한 종류의 작품으로 라파엘 델가도(Rafael Delgado)의 『라 칼란드리아(La Calandria)』(1890), 페데리코 감보아(Federico Gamboa)의 『산타(Santa)』(1903), 마리아노 아수엘로(Mariano Azuelo)의 『마리아 루이사(Maria Luisa)』(1907)를 꼽는다(17-18).

IV. 불안정한 “우리”의 범주: 여성적 남성과 남성적 여성 사이

지금까지 본 연구는 『불까노』, 『빠울리나의 기억』, 『라 롬바』에서 주요 여성 인물을 사회 중심부에 대한 철저한 타자로 구축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타자화가 근대 국가의 주체로서의 남성 지식인 그룹인 “우리”를 획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주체성(agency)이 전도되는 형태의 내적 균열이 일어남을 제시하고자 한다.

『불까노』의 “서론”에서부터 멕시코 시티의 젊은 지식인들이 모이는 사교모임으로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서술자와 주인공은 후자의 과거라는 비밀을 공유하게 되고 서술자는 이를 독자들과 공유하는 구조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된다. 그 후 바로 “서론”과 연결되는 1장에서부터 주인공은 이 글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이러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범죄의 얼룩은 씻어내는 것과 같다. 당신들이 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어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초상이며** 이 신세계에 사는 문명화된 **우리들의 은밀한 관습**을 담아낸 역동적인 그림이기 때문이다. (Frías y Soto 2018, 17, 필자강조)

주인공인 “나”, 전체 서술자, 소설의 독자 사이의 공동체 의식은 필로메나를 재료로 하는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형성된다. 주인공과 서술자가 홀리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아이와 홀리아는 모두 죽어있는 상태였다. 이후 작품은 홀리아의 남편이 당대를 대변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며 끝을 맺는다. “오직 불까노, 홀리아의 남편만이 부인의 이름까지 그의 기억에서 지울 수 있었다. 그는 부를 누렸을 뿐 만 아니라 사회가 부를 가진 이들에게 보내는 경의를 누리며 살았다” (Frías y Soto 2018, 55). 결국 이 작품은 서술자와 주인공으로 대변되는 젊은 지식인 그룹이 불까노로 대변되는 물질주의 혹은 전통적으로 부를 가진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강조된 필로메나의 탐욕은 주인공과 여성 인물 사이의 주도권 관계가 전도되는 장면을 형성하며 작품의 주요 담론이 가진 내적 균열을 드러낸다.

필로메나와 동거하다 재정적 어려움에 당면한 “나”는 말다툼 중 필로메나가 노파를 버린 행위를 비인간적이라고 비난한다. 이에 필로메나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그녀는 경멸하는 표정을 지으면 내게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소녀는 유혹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한 인간에게는 어떤 이름이 걸맞을까? 더구나 그 소녀는 교육도 받지 못했고 악함을 분간할 지식과 직관도 없었는데 말이야. 이제 말다툼은 의미 없어. 너에게 수없이 요구했듯 이제 우리 헤어져.” (Frias y Soto 2018, 31)

위 장면에서 필로메나는 “나”를 논리적으로 완전히 압도하며 주인공이 비판의 기준으로 삼은 도덕적 기준을 활용하여 주인공을 궁지에 몬다. 홀리아로 이름을 바꾼 후에도 그녀는 주인공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불까노로 불리는 남편의 재산을 획득하기 위한 계획을 능동적으로 실행한다. 이 계획 중 하나는 결혼식 당일 남편의 죄를 당국에 신고하여 남편이 체포되게 하는 것이다. 그녀는 이 방식으로 만든 남편의 부재를 이용하여 “나”와 밀회를 나누고 재산 상속의 수단이 될 아이를 얻게 된다.

소설의 중요 담론이 제시하고자 한 불까노에 대한 대항점이 젊은 지식인 그룹이라면, 이야기에서 실제로 불까노에 주체적으로 대항하는 인물은 필로메나라고 할 수 있다. 산고로 목숨이 위험해진 필로메나가 위급하다는 편지에서 불까노는 “나”에게 자신이 모든 계획을 이미 알고 있으며 필로메나를 용서했으나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그녀를 찾아가라고 전한다. 이 장면은 불까노에 대항하던 필로메나가 패배하고 죽음을 맞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이 작품은 필로메나에게 과도한 물질적 탐욕을 부여함으로써 불까노와 “나”의 대립 관계보다 불까노와 필로메나의 대립 관계가 더 강조되는 서사구조를 형성한다.

『빠울리나의 기억』이 가진 내적 균열은 서술 시점에 나타난 일관성의 결여와 주인공의 서사적 정체성이 파편화된 형태로 재현된다는 점이다. 이 작품은 파리에서 온 꼬리스파라는 빠울리나의 정체성과 멕시코 여행기라는 서사적 틀 외에는 달리 주요한 플롯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에피소드 사이의 연결

이 매우 느슨하고 한 에피소드에서도 특정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두서없이 등장하곤 한다. 빠울리나라는 인물의 정체성을 형성할 만한 특징은 “프롤로그”에 제시되었던 정보 이외에는 거의 새롭게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멕시코의 현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려다 보니 외국인이자 꼬리스파라는 조건에는 자연스럽게 지 않은 지식의 양과 관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빠울리나의 기억』 6장에서는 멕시코 신문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데 자신이 고른 4개의 신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 네 개의 신문조차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한다. 멕시코 시티의 신문에 대한 이런 방대한 지식과 비판적 관점은 이전의 서술자와는 사뭇 다른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명예로움과 공평함으로 가장한 타락과 냉소가 저널리즘의 결과물이 되어 버렸다. 용감함이라는 간질에 걸린 시인은 신문을 두 그룹으로 분류한다. 하나는 팔린 신문이고 또 하나는 아직도 판매 중인 신문이다. (Negrete 2018, 51)

위와 같이 제삼자로 칭하지만 네그레테 본인이라 유추할 수 있는 “시인”을 언급하며 서술자는 당대 저널리즘에 대한 비평을 제시한다(Sandoval 2006, 14). 10장에서 역시 호세 네그레테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며 그가 했다는 말이 빠울리나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된다(Negrete 2018, 68). 이러한 구성은 멕시코의 사회 현상에 대한 작가 자신의 비판적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

필로메나나 레메디오스의 비해 당대의 젠더 관점에서는 자유롭지만 빠울리나의 정체성은 전형적인 꼬리스파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즉 작가는 프랑스인 꼬리스파라는 정체성을 빌어 파울리나를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로 만들고 있을 뿐이며, 이로 인해 형성되는 정체성은 당대의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자아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 많은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빠울리나는 XVI장에서 그 중 페리코(Perico)라 불리는 젊은 남성의 아버지에게 멕시코를 떠나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이후 빠울리나는 짐을 싸서 기차를 타고 떠나며 끝으로 “안녕, 멕시코”라는 말을 남긴다(Negrete 2018,

104). 하지만 “에필로그”에서 갑자기 1인칭 서술자가 등장하여 “빠올리나는 정말 승선했을까”(Negrete 2018, 105)라는 물음을 독자에게 던진다. 이러한 설정은 『라 레비스타 우니베르살』이 빠올리나를 실존 인물처럼 표현한 퍼포먼스와 더불어 빠올리나의 목소리로 이 작품과 유사한 사회비판이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인상을 독자에게 남기는 동시에, 이 역할의 주체가 소설의 작가를 비롯한 당대 기득권에 비판적인 지식인 그룹임을 암시하는 장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라 롬바』에서 레메디오스에게 구애하는 마우리시오와 나폴레옹은 서로 다른 특성이 두드러진다. 마우리시오는 스페인 아스투리아 출신 이민자이며, 나폴레옹은 프랑스 바르셀로네트(Bacrclonette) 출신 이민자이다. 전자의 주요 특징은 못난 외모와 더러운 의복, 그리고 난폭한 성격이다(De Campo 2018, 58). 나폴레옹은 잘생긴 외모를 가졌지만 윤리적이지 못하고 의심과 질투가 많은 성격으로 묘사된다. 이 두 사람 모두 서술자인 꼬로니스파와는 다른 정체성을 지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서술자는 이러한 거리에 기반해 프랑스 이민자와 스페인 이민자 남성이 위험한 여성성을 지닌 레메디오스에게 욕망을 느끼며 어떻게 파멸해가는지 보여준다.

나폴레옹 살해사건 법정 장면에서는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레메디오스와 겁에 질린 마우리시오가 대비되어 그려진다. 이로 인해 마우리시오는 레메디오스의 배신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임이 두드러지는데 결국 작품 초기에 서술자가 강조했던 레메디오스의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은 나폴레옹의 죽음과 마우리시오의 구속이라는 비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특히 마우리시오가 재판정에서 겁에 질린 모습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이 그의 남성성이 퇴화된 것처럼 제시된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은 불쌍한 마우리시오였다. 커피색 모자를 손으로 돌리며 이겨낼 수 없는 떨림과 비쩍 마른 몸으로 동정을 구했고, 눈물 맺힌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전에는 강인한 젊은 남성이었던 그가 이제는 비탄에 쌓여 있을 뿐이었다. (De Campo 2018, 186)

더구나 레메디오스가 나폴레옹과의 몸싸움에서 그를 살해하는 설정은 그녀의 비정상성을 두드러지게 하려고 건장한 신체를 가진 여성으로서 설정했기에 가능한 플롯 구성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소설의 후반부 구성은 레메디오스 사건이 멕시코 전역에 파급력이 높은 사건이어야만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기에, 남성이 여성에게 살해되었다는 설정 역시 플롯 구성에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비정상적” 여성성은 작품에서 제시하려는 “우리”의 서사화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마우리시오와 레메디오스가 대비되는 법정 장면과 나폴레옹의 살해 당한 설정으로 인해 전통적 젠더 개념의 근간이 되는 남녀별 신체 구분은 연약한 남성과 강인한 여성이란 이미지로 전도된다.

서술자는 레메디오스가 나폴레옹을 살해하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단지 집에서 비명이 났다는 설명을 끝으로 마우리시오와 룬바의 주민들로 초점을 바꾸면서 앞의 사건에서 누가 총에 맞았는지 독자들에게 의문점으로 남겨둔다. 그러다가 X장에서 마우리시오가 갑자기 체포되는 장면이 등장하고 이후 신문 기사를 통해 레메디오스가 나폴레옹을 살해했다는 소식이 룬바의 주민들 뿐 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전달된다. 심지어 이는 신문 기사의 형식으로 자세히 묘사된다. 이처럼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레메디오스 사건이 신문기자의 시점을 통해 전달되면서 독자와 사건 간의 거리는 전반부보다 멀어지게 된다.

레메디오스가 나폴레옹을 살해하고 재판을 받게 되면서 멕시코 시티의 여론이 그녀를 주목하자 XII장에서 갑자기 서술자가 개입하여 레메디오스에게 말을 건다.

레메디오스, 너는 이름이 알려지길 원했지, 그렇게 인구에 회자 되길 원했어. 이제 그 소원을 이루었네. 그 경위는 언급하지 않을게. 하지만 순식간에 네 이름이 이 공간에 퍼지게 되었지. 가세티야(gacetiilla)를 쓰는 기자의 책상이 네가 그토록 원하던 사회라는 괴물로부터 너를 격리한 공간에 말이야.
(De Campo 2018, 154)

처음에는 레메디오스라는 인물을 소개하며 그녀가 비극적인 삶을 겪게 되는 과정을 소설의 형식으로 제시하던 이 작품은 후반부로 갈수록 멕시코 시터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어떻게 공론화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서술자인 크로니스파가 직접 등장해 레메디오스가 갇힌 벨렌 감옥을 자세히 묘사한다든지 마우리시오와 레메디오스의 법정 장면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제시한다.

XV장부터 마우리시오와 레메디오스의 법정 장면이 묘사되기 시작해서 XVIII장까지 네 장에 걸쳐 이어진다. 이 장면에서 주로 강조되는 법정의 특징은 청중들의 어수선했음, 배심원들의 비전문성, 검사와 판사의 직업적 태도, 변호사의 감정보호소, 신문기자의 기회주의적 태도이다. 특히 서술자는 청중들이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해 법정에 왔다는 묘사를 강조한다(De Campo 2018, 181). 이와 같은 청중의 특성은 레보예도로 대표되는 당시 흥미 위주의 기사를 쓰던 기자들과 그들의 기사에 부합하는 대중을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앞에서 언급한 『엘 나시오날』의 퍼포먼스와 함께 이 소설의 내용은 레메디오스가 나폴레옹을 살해한 자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를 제시하려 한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사건의 진실이 구성되는 과정을 목격한 독자와 진정한 저널리즘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동체를 구축한다.

V. 결론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세 작품은 공통으로 주요 담론이 제시한 젠더 개념을 수행하지 않고 전복적 성격에 이르는 여성 인물을 재현한다. 각각의 작품은 이들 여성의 타자화를 통해 구성되는 “우리”의 정서적·관념적 범주를 획정하고 이를 내재화한다. 『불까노』에서 “우리”는 물질주의에 대항하는 젊은 지식인 그룹이었고, 『빠울리나의 기억』에서는 멕시코의 기득권층을 비판하는 지식인 그룹이었으며, 『라 롬바』는 대중의 취향에 부합하기보다 사건의 진실한 의미를 탐구하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룹을 “우리”로 만든다.

세 작품 모두 주요여성 인물을 재현할 때, 당대 여성을 사회 주체가 되기에 부족한 존재로 구축하는 데 사용되던 물질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의 화신이란 전형화 전략을 사용한다. 하지만 각각의 작품이 구축하려는 “우리”의 범주에 적합하게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여성 인물들은 다채로운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해 각 여성 인물은 단순히 주어진 윤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당대 젠더 의식의 근간을 불안정하게 하는 수준의 주체성을 얻기도 한다.

세 작품의 이러한 기획은 결국 전통적 성역할의 내재화와 국가의 근대화 기획, 근대화의 주체인 “우리”의 획정이라는 욕망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균열을 드러낸다. 세 작품 모두 라틴아메리카 문학사에서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던 작품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분석이 이 작품들이 현대에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찾아내는 예시가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Cano Sánchez, Beatriz Lucía(2018), *Andanzas de un liberal queretano: Hilarión Frías y Soto*, Mexico: Instituto Nacional de Antropología e Historia.
- Canales Ucha, Claudia(2018), “Presentación”, in L. de Anda Alanís, R. Paytuyi Llorente and E. Rodríguez Cid(Eds.), *Vulcano*, Mexico: UNAM, pp. 5-14.
- Cañedo, Cañedo(2018), “Presentación. Cancán para un escándalo, *Las Memorias de Paulina* de José Negrete”, in César Cañedo(Ed.), *Memorias de Paulina*, Mexico: UNAM, pp. 7-18.
- De Campo, Ángel(2018), *La Rumba*, Celina Márquez Taff(Ed.), Mexico: UNAM.
- Dykstra, Bram(1986), *Idols of perversity: Fantasies of feminine evil in fin-de-siecle culture*,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elski, Rita(1995), *The Gender of Modern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Franco, Jean(1989), *Plotting Women: Gender and Representation in Mexico*,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 Frías y Soto, Hilarión(2018), *Vulcano*, L. de Anda Alanís, R. Paytuyi Llorente and E. Rodríguez Cid(Eds.), Mexico: UNAM.
- Negrete, José(2018), *Memorias de Paulina*, Notas. César Cañedo y Braulio Aguilar,

Mexico: UNAM.

- Núñez Roa, Carlos Mauricio(2020), “Vulcano, de Hilarión Frías y Soto: tres lecutras desde su materialidad”, *(an)ecdótica*, Vol. 4, No. 1, pp. 9-31.
- Olea Franco, Rafael(2018), “Presentación. la modernidad de La Rumba, de Ánge de Campo”, *La Rumba*, Celina Márquez Taff(Ed.), Mexico: UNAM.
- Oh, Minwook(2021), Espectacularidad y género: dandis y actrices en las obras de Manuel Gutiérrez Nájera. *Bulletin of Hispanic Studies* (1475-3839), Vol. 98, No. 2.
- Sandoval, Adriana(2006), “La censura y Memorias de Paulina”, *Literatura Mexicana*, Vol. 17, No. 2, pp. 5-24.
- Skinner, Lee(2016), *Gender and the Rhetoric of Modernity in Spanish America, 1850-1910*,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 Rodríguez González, Yliana(2012), “La inestabilidad de los géneros en el cambio del siglo y la lectura. Una polémica entre El Nacional y El Monitor Republicano a propósito de La Rumba, de Ángel de Campo”, *en Estar en el presente: literatura y nación desde el Bicentenario*, Lima-Berkeley, Latinoamericana Editores, pp. 99-114.

오만욱

전북대학교

omw2021@jbnu.ac.kr

논문투고일: 2023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2023년 8월 18일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23일

Representations of Subversiveness and Femininity in Mexican Narratives in the 19th Century

Minwook Oh

Jeonbuk National University

Oh, Minwook(2023), "Representations of Subversiveness and Femininity in Mexican Narratives in the 19th Century,"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4(2), 145-175.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subversiveness of dominant discourses through the representation of femininity in the novels published in Mexico from the mid to late 19th century. Therefore, the present work analyzes the relation between the strategies for establishing the subjectivity of modern citizens and the gender representation of the narrative works. The main objects of analysis are *Vulcano* (1861) by Hilarión Frías y Soto, *Memorias de Paulina* (1874) by José Negrete, and *La Rumba* (1890) by Ángel de Campos.

This study discusses the aspects in which these three works visualize the potential or actual risk factors that would overthrow the social system of the time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in female characters. Second, the present analysis try to prove that the various models of dangerous women represented in these works play a role in revealing the challenges faced by Mexican society in each period, as well as defining the scope of the male ruling community. Lastly, this project shows an internal crack in the process of narrating gender roles, and reveals the contradiction of the ruling discourse presented by the elite group at the time.

Key words Femininity, subjectivity, journalism and fiction, national community